광주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의 하나인 '시각 미디어 문화권' 대상지에 포함된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 일대. 이 사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포함한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조성 사업의 주요 현안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전당서 싹 튼 문화, 광주 전체에 골고루 퍼지게

광주·전남 미래 바꿀 3대 役事 완공의 해 〈9〉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③ 전당 개관 효과 높이려면

### 7대 문화권 조성사업 문화도시 기반조성 사업 예산에 발목 활력 잃어 市·문체부 적극 나서야

오는 10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의 완공에 맞춰 광주가 명실상부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도심 곳곳에 문화적 생태를 만드는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현안인 문화전당이 완공되는 만큼 이 사업의 또 하나의 축인 7대 문화권 구축 등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15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추진되며, 문화전당 건립과 문화적 도시환경조성 등 양대 현안이 마무리돼야 사업이 완결된다.

문화적 도시환경조성 사업은 광주 도심을 권역별로 나눠 문화인프라를 확충하는 7대 문화권 조성사업과 도시에 문화적 경관을 조성하는 문화도시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성돼 있는 대형 프로젝트다.

7대 문화권 조성사업에서 광주시 동구의 '문화전당권'은 도시의 문화에너지가 광주 전역으로 퍼지게 하는 발아(發芽)지점이다. '아시아문화교류권'은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가 일상적으로 교류,생산,판매되는 공간으로 남구 사직공원과 양림동 일대가 사업 대상지다.

'아시아 신과학권'은 아시아의 전승지식과 전승의학의 과학화·산업화를 통해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광산구 비아, 첨단지구 일대가 해당된다.

또 아시아전승문화권(남구 대촌동 일대), 문화경관·생태환경 보존권(무등산·광주호), 교육문화권(서구 마륵동 일대), 시각 미디어 문화권(북구 중외공원 일대) 등이 있다.

문화적 환경 조성사업은 광주 5개 구의 특성을 반영해 기능별로 문화권을 설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해 문화의 길을 만드는 게 골자다.

공공디자인을 반영해 도시의 이미지를 구성하고, 도심의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해 문화적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광주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해 문화가 있는 쉼터로 조성하는 사업과 산업화 과정에서 복개하천으로 변질된 동계천(동구), 서방천(북구), 용봉천(북구) 등을 복원하는 현안도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현재 활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사업 예산의 성격이 정부와 광주시가 각각 절반씩 분담해야 하는 조건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문화부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종합 수정계획(2013~2023년)에 따르면 총 예산규모는 4조5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광주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7000여억원에 달한다. 결국, 광주시의 열악한 재원으로는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지원도 문화적 도시환경조성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광주시와 문화부가 협의를 거쳐 확정한 사업안이 예산 주무부처인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된 경우도 있다. 실제 올해만도 광주시 동구 지산동에 오감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예산신청액 10억원)에 제동이 걸렸다.

기재부의 주된 논리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서 추진해야할 사업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었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문화전당의 인프라가 완결돼 가는 상황에서 '문화적 도시환경조성' 사업에 속도가 붙지 않는다면 문화전당 건립 효과가 도시 전체에 미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또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7대 문화지구 조성사업의 핵심인 예산확보 문제 등 난제를 풀어내고 적극 대응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김하림(조선대 교수) 광주전남문화연대 공동대표는 "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하나일 뿐"이라며 "광주가 진정한 문화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7대 문화권 조성사업 등 문화적 도시환경조성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 7대 문화권 조성 사업

| ▼ 권역 | ▼ 대상지 | ▼ 핵심사업 |
|---|---|---|
| 문화전당권 | 동구 문화전당 주변 | ·문화전당 건립<br>·아시아음식문화거리 조성 |
| 아시아 문화 교류권 | 남구 사직공원, 양림동, 광주공원 일대 | ·사직공원재생 공공디자인 프로젝트<br>·아시아 예술인 공방촌 조성 |
| 아시아 신과학권 | 광산구 비아동 일대 | ·동서양 의과학 융합연구 및 신기술 개발단지 조성<br>·산단 아트 팩토리 |
| 아시아 전승 문화권 | 남구 대촌, 효천 역세권 | ·고싸움 브랜드 개발<br>·아시아전승놀이 테마파크 조성 |
| 문화경관 생태환경 보존권 | 북구 및 동구 무등산 | ·생태문화공원 조성(영산강, 황룡강)<br>·아시아 아트컬처파크 조성 |
| 교육문화권 | 서구 마륵동 | ·문화예술테마파크 조성<br>·청소년 지식박물관 건립 |
| 시각미디어 문화권 | 북구 중외공원 | ·중외종합예술공원 조성<br>·중외인터렉티브 미디어센터 조성 |

〈자료: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추진단〉

## 소용돌이 치는 눈보라…시선을 빨아들이는 힘

김은영의 '그림 생각'

### (59) 강추위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외딴 두메 마을 길 끊어놓을 듯/은하수가 펑펑 쏟아져 날아올 듯 덤벼드는/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최승호 작 '대설주의보' 중에서〉

새해 벽두부터 칼바람이 차갑다. 기록적인 한파로 세계 곳곳이 얼어붙었다는 뉴스를 접하니 우리들 마음도 더욱 꽁꽁 얼어붙는다. 현재의 기상이변은 시인의 시처럼 단순한 한파주의보가 아니라 '백색 계엄령'에 가까운 공포로 여겨진다. 대자연의 위력 앞에 새삼 한없이 작아지는 인간의 모습이 실감난다.

인간은 자연의 거대함에 압도될 때 감동과 경외를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 같다. 서양미술에서 19세기 낭만주의는 인간을 압도하고 위압하는 자연을 '숭고한 대상'으로 재발견한다. 서양미술에서는 대상의 '모방과 재현'이 오래도록 중요한 가치였지만 낭만주의에 이르러서 대상을 바라보는 작가 내면의 정서가 적극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한다. 작가의 감정을 담아내기에 적합했던 풍경화가 이 시기에 절정을 이룬 이유다.

윌리암 터너 작 '눈보라'

영국 회화의 자존심이라 할 조지프 말러드 윌리암 터너(1775~1851)는 폭풍, 눈보라, 눈사태, 파도, 대홍수 등 장엄한 자연을 그린 낭만주의 풍경화가로 유명하다. 작품 '눈보라'(1842년 작)는 하늘을 뒤덮은 검은 구름과 폭풍우가 휘몰아치며 일어난 눈보라의 소용돌이를 그려 대자연의 위력을 과시한다. 터너는 시각적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눈, 바람, 하늘 등 대상의 사실적인 표현 대신 과감한 색채로 대기와 눈보라의 맹렬한 속도감을 표현한다.

영국의 비평가 윌리엄 해즐리트는 "터너의 회화는 화면에서 대상의 윤곽을 해체하고 소멸시켜 버림으로써 이미 추상회화가 되었다"고 찬미하면서 미술사에서의 선구자적 위치를 강조한다. 영국 테이트 브리튼은 1984년 최고 권위의 현대미술상인 '터너상'을 제정해 해마다 터너의 뛰어난 예술성을 기리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전시부장·미술사박사〉

## 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내달 말 확정

정부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전략은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반발짝 정도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달 각 부처 연두 업무보고에서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내달말 각계 의견을 수렴, 계획을 확정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3개년 계획은 과거 5개년 계획과 달라=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의미가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중첩되는 것을 경계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1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전략으로 ▲민관 및 부처간 협업 ▲공공부문 솔선수범 ▲구체적인 성과 지향 등을 제시했다. 우선 혁신 3개년 계획의 수립·집행·점검 등 전 과정에서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창의적인 발전 대안을 발굴하려는 것이다.

◇정부 '지대추구 고착화' 언급=흥미로운 것은 정부가 이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배경을 설명하면서 비정상적인 사회곳곳의 '지대 추구(Rent Seeking)'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이다. 지대 추구란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 즉 독점이나 관세 등 로비·약탈·방어 등 경제력 낭비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기득권에 안주하는 영역, 원전 비리 등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보조금 부정수급,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 등이 꼽힌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등 3대 과제 제시=정부는 이날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의 정상화)',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내수활성화)' 등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는 공공기관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근절, 유사·중복 사업 조정, 지하경제양성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세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강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사회적 자본 확립, 취약계층 지원 등이다. 창조경제 부문은 창조경제 구현과 해외진출 촉진, 미래대비 투자 등이 키워드로 제시됐다. 특히 창조경제 부문에서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확대, 인적자본 육성, 인수합병(M&A) 활성화,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확대,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 저출산·고령화 대응,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등이 언급됐다. 내수활성화 차원에서는 투자촉진, 소비활성화, 고용률 제고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규제총량제 도입, 투자규제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 등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가계부채 관리, 사교육비 경감, 일자리 확대, 중소중견기업 성장 촉진 등이 주요 골자다.

/연합뉴스